



중국산 장난감 83종 '구매 주의보'
중국산 장난감 83종에 대해 '구매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피셔프라이스社가 공급한 빅버드(Big Bird), 엘모(Elmo), 도라(Dora), 디에고(Diego) 캐릭터 등의 장난감에 칠해진 페인트에서 과도한 양의 납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이들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이번 리콜 조치된 제품은 금년 5~8월 미국에서 약 96만 7000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이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은 “엘모의 기타, 엘모 영어숫자놀이, 엘모 깔깔웃음상자, 도라와 행복이가득한집, 도라와 함께 하는 모험의 세계(동물구조센터·동화의 성)” 등의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고, 대형마트, 완구전문매장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였다.

*리콜대상 제품 현황은 www.service.mattel.com 에서도 확인 가능

**소비자주의보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제품 중 안전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매 시 사용상의 주의

요하기위한것으로수입업자가불투명한경우우선적으로조치하는것임

아울러기술표준원은케인트를칠한중국산장난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하고, 자율안전확인 표시(KPS)가 없는 제품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KPS 마크미(未) 부착 불법 제품을 진열·보관한 판매자는 처벌 받게 된다.



맨땅 어린이 놀이터' 금지

내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등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 설치 의무화된다. 또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낱, 크롬, 카드뮴, 수은 등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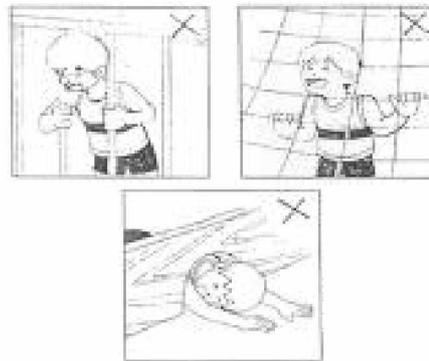
기술표준원은 8.28일 부러 이러한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여 입안 예고 하였다.

이 입안 예고에 따르면 조경 시설과 울타리에는 완충물이 놀이터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하며, 놀이터 내에 사용 연령과 사용 상 안전 수칙 등을 표시하고 그네 등의 놀이기구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머리, 손, 발등의 끼임에 의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 봉 사이의 간격을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하여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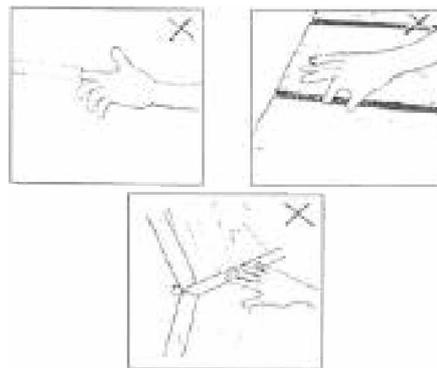
《머리 끼임 사고 발생 사례》



89~230mm 사이의 그물, 봉 등에 의한 머리 끼임

또한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해 파이프 끝을 막거나 판 사이의 간격을 8mm보다 작거나 25mm보다 크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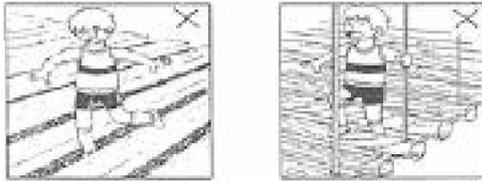
《손 끼임 사고 발생 사례》



8~25mm 판 사이에 손가락 끼임

록하였으며,
발 또는다리끼임방지를위해판등의부품사이의
간격을30mm이상틈이없도록하였다.

발 끼임 사고 발생 사례:



30mm 이상의 틈에 의한 발 끼임

따라서전국의6만여모든어린이놀이터는향후4
년 이내에새로 제정될설치기준의적용을받아정
기검사를받아야하고, 또한어린이놀이터를새로
설치할경우에는반드시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
을만족해야설치가가능하 되었다.

그간안심하고안전하게이용 할수 있는어린이놀
이터에대한구체적인설치기준이없어 어린이놀
이터에의한안전사고가작년만해도307건이발생
하는등해마다증가하고있는가운데, 이번설치기
준은어린이놀이터에의한안전사고를대폭 줄일
수있는계기가 될것으로기대된다.

※놀이시설안전사고추세: ('04) 146건 → ('05) 186건 →
('06) 307건(65%증가)

또한미국, 유럽등 선진국의안전기준을바탕으로
설치기준이마련되어우리나라놀이터안전관리수
준을 선진국수준으로향상하는데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

한편기술표준원은정부의관리감독에서벗어나고
있는백화점,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병원에있
는 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 안전관리를강화하고,

안전사고시보험에의해 배상토록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과시행규칙
을 금년내 제정할계획이며현재 시행령과시행규
칙(안)을마련하여규제심사중에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제정 공포(07.1.26)하
여'08.1.27일부터시행예정임



물놀이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기술표준원은집중휴가철인8월3일, 6일, 7일(3일
간) 전국주요해수욕장4곳에서 여름철물놀이용
품안전사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안전캠페인실시 해수욕장: 여의도(서울)· 해운대(부
산)· 경포대(강릉)· 대천(보령)

기술표준원은자체 제품안전지킴이단위에 서울·
부산· 강릉· 보령시 등 관련지자체및 대한적십자
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수상레저안전연
합회와합동으로안전캠페인을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중에는안전한물놀이용품사용방법
및 안전수칙교육, 물놀이중 발에쥐가났을 때 대
처 요령과인공호흡법등 응급조치법시범이선보
였다. 특히, 물에빠진위험상황을가장한인명구조
피포먼스를통해 안전에대한 경각심을높이고, 물

놀이용품안전사출이 침서도배포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성숙되길 바라고, 아울러 지난 3월에 새로 개편된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어 KPS 안전마크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新安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

기술표준원은 최근 잇따른 리콜 조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중국산 장난감 등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3.24부터 시행한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 일정>

일자	시간	지역	장소
07.8.28(화)	15:0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기술표준원 중강당
07.9.5(수)	14:00~	광주, 전남, 전북	광주 전남중소기업총회의실
07.9.6(목)	15:00~	대구, 경북	대구기계제품연구원 세미나실
07.9.7(금)	10:00~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07.9.10(월)	15:00~	대전, 충북, 충남	대전시청서대 나빌

이번 순회 설명회는 안전관리대상 품목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불법·불량 제품의 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8.28(화)부터 실시된다.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는 소비자에 대한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 방법을 자동화(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은 제품 출고

또는 세관 통관이전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품안전마크(KPS 마크)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제품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 KPS: Korea Products Safety의 줄임말로 제품안전표시로 사용됨



[안전인증 마크]



[자율안전확인 마크]

한편,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표시내용 확인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 저가제품 수입 증가,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소비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신속조치제도를 신설하여 법정 안전관리 대상 이외의 공산품에 대하여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시에는 리콜 권고 및 언론 공표 등을 통해 안전사고 지대를 해소시키 나갈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계기로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되어 안전한 제품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첨단 진공기술 국제표준 추진

최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진공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진공 밸브 시험 절차 및 온케이지의 사양에 대한 국제규격안 2종이 각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제표준화기구(ISO/TC 112(진공기술분야) 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제표준화가 추진된다. 이번 국제규격의 제안 승인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세계 최고의 생산국이면서 초기술이기에 걸맞게 구축되어 있지 못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던 '이온게이지' 및 '진공밸브'와 관련하여 우리 고유 개발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격안이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경우 '진공밸브'와 관련한 진공 가스 누출 시험 기술 분야에서 국내의 기술이 반영되어 국내 업체와 해외 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온게이지는 현재 국내 생산 업체가 없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 기술에 의한 국산화가 조기에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상기 2종의 규격안이 외에도 최근 (07. 7. 10~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플랜지가 큰 치수(50~100mm)의 진공밸브에 대해서도 국제표준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진공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에 착수해 오고 있다. 이번 국제표준화 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진공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 국내 진공기술 제품의 수출을 견인하는 등 국가간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진공기술이 ISO 규격으로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에 힘써야 하는 일천한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진공청소기 표시규정 개정

기술표준원은 진공청소기에 소비전력 표시를 크게 하여 이를 진공청소기의 성능인 흡입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진공청소기의 표시기준을 소비전력과 흡입력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현재, 진공청소기에는 제품명, 모델명, 소비전력을 표시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흡입력 표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비전력이 큰 진공청소기는 흡입 성능도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전력이 흡입 성능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전력에 대한 흡입력의 비율인 흡입일률이 최저 19%~49%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항 목	A사	B사	C사
소비전력(W)	1,050	1,100	1,800
흡입력(W)	510	510	350
흡입률(%) (=흡입력/소비전력)	49	46	19

기술표준원은진공청소기에숫자만을표시하여 소비전력이큰제품이성능이좋은제품으로오인될수없도록숫자를표시하는경우에는소비전력또는흡입력표시를반드시명기토록표시기준의개정을고시하고, 관련업계와소비기간등을고려하여빠르면2007년11월(07.10.19일고시예정)부터생산되는제품에대하여적용하기로하였다.

※표시에: 흡입력: 500W, 소비전력: 1500W

금번진공청소기의표시기준개정으로서소비자는소비전력이낮으면서흡입력이큰제품을선택할수있어구매비용및전기료부담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생산업계는고효율제품의개발을통해산업경쟁력강화와함께에너지절감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디스플레이 산업 국제표준협력 체계구축

세계최고의생산기술력으로세계시장1위를점유하고있는우리나라디스플레이산업의체질을강화하기위해표준선진국과의협력채널구축등다각적인국제표준화전략이담겨있는『디스플레이 산업 국제표준화계획』이 마련되어추진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최근 환율하락, 고유가에체널가격하락문제가속되고있고또한경쟁국가간글로벌마켓에서의경쟁이날로심화되고있어,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우리기술의국제표준제안확대, 국제표준화기구리더그룹양성, 경쟁국간국제표준협력강화등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우리나라는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디스플레이

이분야에서국제표준화기진행중인규격(15종)의 53%(8종)을 제안· 채택시켜위를 차지하여 명실공히 디스플레이중주국으로서면모를과시하고 있다.

※ 한국8종, 미국중국일본각2종, 네덜란드1종. 하지만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취약한차세대디스플레이와장비· 재료분야에서넓은 경쟁국보다 열세에있기 때문에이들 국가들과표준화협력을 통해 선진기술도입의기회를활용하는등 지속적인국제표준화지배력 확립필요가있다.

이 일환으로기술표준원은세계적으로첨단기술의 연구결과공유및 측정표준을주도하고있는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장) 및 국제디스플레이측정위원회 의장을초청하여국제표준화협력체제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8월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한· 미국제평판디스플레이표준화세미나」를 개최하여중소기업등 산· 학· 연에서활발히진행중인 국제표준화등에 대한양국간협력증진방안에 관한토론이있었다.

세미나에서HDTV의 소비전력측정방법, 디스플레이의크기 및 해상도에따른영상신호의적합한 평가방법, 특정채널을통한주관적인분석및 측정방법, 인간의시각인지특성을고려한디스플레이 측정방법등 최신표준기술이소개되었다.

앞으로기술표준원은우리기술의국제표준제안을 확대하고경쟁국과의국제표준협력을활성화함으로써 디스플레이산업규모에비해취약한부품· 소재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کم정부적으로마련한 「디스플레이분업품· 소재기술개발전략」의 조기달성을지원하고그간의핵심부품위주의 국제표준화전략에서한걸음더 나아가핵심소재에 관한국제표준화확대를통해 핵심기초및 요소

기술의국제표준선점등을적극추진해나아갈계획이다.



원자력 국제표준화 사업 추진

세계원전(原電) 시장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가운데 우리나라가원자력강국으로진입할수 있는발판을마련하고자2011년까지5년 동안34억 원규모로「원자력국제표준화사업」을추진한다.

최근, 원전은온실가스배출량이거의없고고유가시대에가장적합한에너지로 주목받으며세계각국에서원전건설추가계획이발표되고있다. 관련업계에서는이를두고 '제2의원전 르네상스시대'가열릴것이라며많은기대를하고있다.

※ 세계원전 개발현황: 건설· 증35기, 2,940만kW), 계획중(47기, 5,217만kW)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의 원전 선진국은세계 원전 시장을점유하기위하여치열하게경쟁중이다. 우리나라도30년 원전 Know-how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개척하고있다.

금번 원자력국제표준화사업은원자력산업의이러한 수출산업화를지원하기위한 것이다. 원자력산업계가해외로진출하기위해서는원천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기술을국제표준으로채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업은 전기 협회 주관이 되어 계측 제어 분야는 원자력 연구원, 안전 분야는 원자력 안전 기술원, 핵연료 분야는 원자력 연료(주) 등과 분야별 원자력 전문 기관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우선, 국제 표준화율 아직 30%인 국가 표준을 국제 표준과 일치화하여 2012년에는 선진국의 95% 수준(총: 210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150여종의 국제 표준을 KS규격으로 도입하게 된다. 2010년까지 의성 장비에는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 한국 표준 50여종을 도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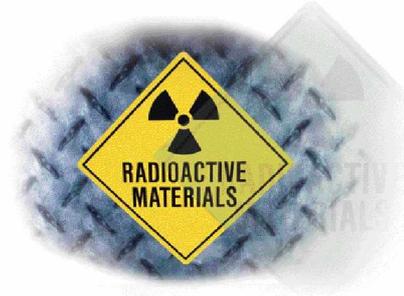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을 위하여 국산 원자로 기술 등 수출 유력 품목과 과 과 과제에 선발된 국산 화기 기술을 중심으로 2011년까지 10건의 국제 표준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IT 강국의 장점을 살려 원자력 분야 IT 표준화 활동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도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원자력 분야 국제 표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11명의 표준 관련 전문가를 2011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중 국제 표준화 워킹 그룹의 장이나 프로젝트 리더를 현재 1명에서 2011년 1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규모나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나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의 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표준 분야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명실상부 원전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 표준원은 원자력 국제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전략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기 위해 2007 원자력 국제 표준화 워크숍을 오는 8월 30일 경주현 대호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정보기기 상호접속 기술위원회 총회 개최

기술 표준원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22개국 120여명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정보기기 상호 접속 기술 위원회(JTC1/SC25) 총회 기술 표준 원주최로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제주도(샤인빌리조트)에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정용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홈게이트웨이(HES Gateway) 기술과 홈네트워크 서비스(CMP) 기술 및 10Gbps급 LAN 케이블 기술 등 차세대 홈네트워크 산업에 걸쳐 갈 국제 표준 안착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홈네트워크 표준의 중심 체계를 규정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개국이 향후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자국 기술 반영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 회의 개최국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동안 국제표준에 반영 시켜진 행중안미들웨어(CCP)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들웨어간 상호호환사용을 보장하는 통합 메카니즘인 MB기술과 맥내무선통신운영지역해소를 위한 WiBEEEM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 CCP(Common Communication Protocol), UMB(Universal Middleware Bridge), WiBEEEM(Wireless Beacon-enable Energy Efficient Mesh Network)

IT분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비쿼

터스 홈네트워크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선점 기회 적극 활용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주도가능한 우리나라의 홈네트워크 무선 통신 및 서비스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실시간으로 국제표준에 반영시키는 등 표준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진형 산업기반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표준 2007. 9

